교통사고 예방 '옐로카펫' 설치 관심 집중

횡단보도 진입부에 노란색 설치 어린이 교통 안전지대 효과 높아

전북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해 평균 300건에 육박하고, 4명 이상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돼 운전자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하는 '옐로카펫(Yellow Carpet)'을 아십니까?"

전북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해 평균 300건에 육박하고, 4명 이상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돼 운전자와 어린이 동시에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옐로카펫' 설치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사망사고의 44%가 교통사고이고, 이의 81%는 횡단보도 관련 사고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북의 경우 지난 2006년 이후 2015년까지 10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298건이 발생, 4.3명씩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횡단보도 진입부에 노란색의 옐로카펫을 설치, 색 대비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업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국제아동인권센터, 동부화재 등이 최근 발표한 '옐로카펫 설치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횡단 대기자 2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옐로카펫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91.1%가 옐로카펫 안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옐로카펫 미설치 횡단보도에서는 85.1%만 가상의 옐로카펫에서 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인의 82.9%와 어린이의 80.0%가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바닥만 설치하는 것보다 바닥과 벽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완주군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동부화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완주군 봉서초등학교 후문 횡단보도 2개소에서 '어린이 교통 안전지대 옐로카펫 제작 설치' 행사를 갖고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적극 나서기로 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전북지역 옐로카펫은 전주 만성초등학교 등 기존 6곳에서 이날 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상민 기자 · 완주=이중복 기자

전북대 최종범 명예교수, 발전기금 1100만원 기탁

"후학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전북대학교에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다 지난달 31일자로 퇴임한 최종범 명예교수가 대학 개교 70주년을 위해 써달라며 1,1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최 교수는 매년 200여 건이 넘는 심장수술을 집도하며 이 분야 국내 최고의 명의로 손꼽힌다. 특히 십여 년을 이은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저개발 국가 아이들에게 무료로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 진료가 없는 날에도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등 참 인술을 실천하고 있는 의사로도 유명하다.

대학 후학들을 위해서도 지난 2011년 김민호 교수(흉부외과)와 함께 2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고 의대 1인 1구좌 장학금도 꾸준히 기부하며 후배와 모교 사랑을 실천해 왔다. 이번에 정년을 맞아 최 교수는 전북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헌와·헌수 캠페인'에 참여해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다.

이에 이남호 총장은 지난 19일 최 교수를 대학본부로 초청해 발전기금 기탁식을 갖고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해은 기자

민주평통 진안군 협의회 회장 이 · 취임식 가져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회장 최경호)는 20일 오전 10시 30분 35명의 자문위원과 이항로 군수, 박명석 군의장, 김현철 도의원, 기관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군청 상황실에서 가졌다.

이날 자문위원회의 홍보동영상을 시작으로 자문위원 개별 소개와 위촉장 전수, 협의회 임원 임명장 수여, 자문위원 선서, 자문위원회의 기 전달, 전임·신임 협의회장의 이·취임사, 군수 · 의장 축사와 18기 자문위원회의 활동방향 및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심의가 있었다.

전임 협의회 강용희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고 섭섭한 점이 있다"며 "회장은 물러났지만 자문위원은 계속하도록 되었으니 전임 회장으로서 적극 동참하고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임 최경호 회장은 "민주평통이 80년대 초기 창설 때보다 많이 약화되었으나 우리 18기가 열심히 해서 회생시켜보자"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순창읍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탄력' … 9개에서 14개로 늘어

순창읍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이 참여 업체들이 확대되면서 훈풍이 불고 있다.

순창읍은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잠정 중단했던 밑반찬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상반기 참여 음식업체가 9개에서 하반기에는 14개로 늘어나면서 밑반찬 지원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하반기 추가 참여 업체는 대명회관, 자현식당, 중앙회관, 먹거리다림방, 소문난집 등 5개 음식업체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은 매주 화요일 1~2명의 결식가정에 영양 가득한 식재료로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사업이다. 순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종국)가 중심이 돼 진행하고 있다.

순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년 이상 후원한 음식업체에 대해 '착한가게' 현판을 만들어 제공해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군산중앙여고 철새보호 연합동아리, 생물다양성 보존활동 매진

군산시 철새조망대와 함께 금강의 철새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군산 중앙여자고등학교(학교장 고현덕) 철새보호 연합동아리 '새들처럼'의 철새사랑이 남다르다.

최근 초등학생에게도 철새사랑의 정신을 전파하며 생물다양성 보존활동에 매진하고 있어 화제다.

새들처럼은 오는 9월 20일에는 아리울 초등학교(학교장 김성규)에, 9월 27일에는 신흥 초등학교(학교장 김왕규)를 방문하여 돌봄교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군산에 찾아오는 철새와 철새의 먹이인 '새섬매자기'를 소개하고 철새와 철새의 먹이를 같이 보호하자는 생물다양성 보존 의식을 고취하며 철새사랑을 전파할 예정이다.

'새들처럼'은 2012년도부터 철새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해 온 원더버즈와 2016년 같은 목적으로 결성된 스마일 버즈, 그리고 같은 해 식물재배를 통한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결성된 스물파머가 연합한 동아리로 철새사랑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주제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남원경찰서-남원중앙새마을금고, 업무협약 체결

남원경찰서는 20일 남원중앙새마을금고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남원지역 범죄피해자 중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2명을 선정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배종선 이사장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준 서장은 협약식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 조기 안정과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섬세한 도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경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소외된 피해자를 돕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삼천지사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6855	임실지사 010-9642-2725
010-2333-4791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8645-9935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익산지사 858-8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사 내방

▲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